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은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동 주민들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공터를 새롭게 정비해 주민 쉼터를 조성해 달라고 △△구청에 요청하였다. △△구청은 주민 쉼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동 주민 측 대표와 만나 세부 사항에 관해 협상을 하게 되었다.

주민 측: 주민 쉼터의 시설 설치와 녹지 조성 중 시설 설치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싶는데 어떠신가요?

구청 측: 네, 좋습니다.

주민 측: 저희가 전에 드린 주민 쉼터 조성 제안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놀이 시설인 미끄럼틀과 그네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은 아동의 수는 많은데 놀이터는 한 곳 뿐이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구청 측: 글쎄요, 어린이 놀이 시설이 설치되면 좋겠지만 정자 두 동과 운동 기구 설치만으로도 예산이 빠듯합니다. 운동 기구 대신 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운동 기구 설치에 ○○동 고령층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요청하신 것이라 제외하기가 어려우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 측: 그렇지만 쉼터 조성 제안을 위해 주민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민 쉼터에 놀이 시설이 설치되면 부족한 놀이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줄어들어 구청의 부담을 덜 수 있을 텐데요. 음, 그럼 정자를 한 동 빼고 어린이 놀이 시설을 설치하면 예산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구청 측: 정자가 한 동만 있어도 괜찮으시다면 놀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하신 미끄럼틀과 그네 모두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 둘 다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 측: 그렇다면 그네 대신 비교적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시소를 설치해 주십시오.

구청 측: 시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끄럼틀과 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죠.

주민 측: 네. 다음은 주민 쉼터 내 녹지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협상을 준비하며 우리 구 주민 쉼터의 녹지 조성 현황을 확인해 보니 전부 나무만 있더군요. ○○동 주민 쉼터는 녹지 일부를 꽃밭으로 조성해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꽃을 심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 측: 꽃밭을 만드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전에도 주민 쉼터 녹지에 꽃밭을 조성한 경우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 금방 황폐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놀면서 꽃을 밟거나 일부 주민들이 꽃을 꺾거나 캐어 갈 우려가 있어 나무를 주로 심고 있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주민 측: 하지만 다양한 꽃이 있으면 주민 쉼터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관리가 어려운 것이 문제라면 주민 자치회에서 꽃밭 관리를 맡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쉼터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민 쉼터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어 구청 홍보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청 측: 음, 꽃밭 관리를 주민들께서 맡아 주신다면 관리가 훨씬 수월하겠군요.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꽃을 알려 주시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어 드리겠습니다.

주민 측: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 협상에 대한 설명 중, 위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협상 참여자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협상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입장이 담긴 문서를 상대방에게 미리 전달할 수 있다.
- ③ 협상에서 참여자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협상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
- ④ 협상에서는 참여자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 간다.
- ⑤ 협상에서 둘 이상의 쟁점이 있는 경우 참여자들의 판단에 따라 하나의 쟁점을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다.

2. 위 협상에 나타난 '주민 측'의 협상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제안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② 기존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협상의 의제가 시급히 타결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요구 수용에는 제삼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확답을 보류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하여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

3. 위 협상에서 '주민 측'과 '구청 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주민 측'이 운동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최초의 입장을 포기하고 '구청 측'의 입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 ② '구청 측'이 주민 쉼터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최초의 입장을 포기하고 '주민 측'의 입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 ③ '주민 측'은 그네 설치에 대해, '구청 측'은 쉼터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보했기 때문이다.
- ④ '주민 측'은 설치될 놀이 시설의 종류에 대해, '구청 측'은 꽃밭 조성에 대해 최초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 ⑤ '주민 측'이 요구한 구청 홍보와 '구청 측'이 요구한 예산 절감 모두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4~7] (가)는 학생들이 정신 건강 의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1'이 '학습 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설명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안녕하세요? ㉠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교지에 글을 실으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교수: 잘 왔어요, 반가워요. 어떤 것이 궁금한가요?

학생 2: 요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건강상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교수: ㉡ 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지요?

학생 2: 네, 맞아요.

교수: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다양해요. 먼저, 눈의 건강을 해치죠. 디지털 기기의 화면에서 발생하는 청색광은 무척 밝아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망막 조직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또, 자기 전에 우리 눈이 이러한 빛의 자극을 받으면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끼쳐 불면증이나 피로 누적이 생기기 쉬워요.

학생 1: 그렇군요. ㉢ 찾아보니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던데, 디지털 기기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교수: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외부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뇌 부위의 활성화가 줄어들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뇌 기능이 저하되어 주의 집중력, 기억력, 계산 능력 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학생 2: 디지털 기기가 편리하다고 좋지만 한 것은 아니었네요. 그 외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교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만 접하다 보면 긴 글이나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디지털 기기가 잠깐만 곁에 없어도 불안감을 느끼거나,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상의 대화와 인간관계에만 익숙해져 대면 만남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죠.

학생 1: 그런데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잘 수록 디지털 기기 사용은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교수: ㉣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때때로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하고 있어요.

학생 1: 디지털 디톡스요?

교수: 네, 말 그대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 쌓인 독을 제거하는 건데요. 일정한 시간이나 기간을 정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습관과 중독 증상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학생 2: ㉤ 아, 일종의 간헐적인 단식 같은 거군요.

교수: 맞아요. 디지털 기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어렵겠지만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눈과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종종 가진다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학생 1: 네, 저도 한번 해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학습 활동]

1.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교지에 글 쓰기
2. 상호 평가를 통한 고쳐 쓰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30.2%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한다.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어 문제이다.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10~15%가량 높은 수준이어서 경각심을 일깨운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여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우며 학습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의 밝은 빛은 눈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할 경우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이나 주의 집중력이 감소되어질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습관이 지속되면 대면 만남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사회성이 결여되거나 기기의 부재 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스스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업을 들을 때나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잠시 꺼 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어 쳐다보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운동이나 산책 등의 여가 활동을 함으로써 스마트폰 외에 다른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는 가급적 블루 라이트 필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잠들기 30분 전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4. ㉠~㉣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터뷰의 목적을 밝히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 ② ㉡: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질문한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 ③ ㉢: 인터뷰에 앞서 찾아본 정보를 활용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④ ㉣: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대한 긍정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5.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2: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을 포함할 생각이야?

학생 1: 교수님은 ㉡

- ①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지. 나도 디지털 디톡스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②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셨지. 나는 그와 관련한 신문 기사 자료를 찾아 글에 포함해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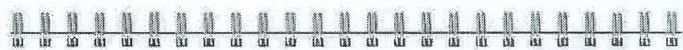
- ③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치매 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④ 디지털 기기의 악영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디지털 기기 중에서도 스마트폰의 사용을 줄이는 것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긴 글이나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청소년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6. 다음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설명문의 끝부분에서는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하고,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이며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 ① 이처럼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운동이나 산책 등의 여가 활동을 해야 한다.
- ② 이처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만이라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례로써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이처럼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눈의 건강을 악화시켜 학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점차 줄여 가야 할 것이다.
- ④ 이처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는 행동을 조금씩 줄여 나간다면 그러한 문제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 ⑤ 이처럼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건강과 학습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 스스로 예방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7. (나)에 대한 '학생 2'의 상호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2'의 평가 내용

잘한 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 실태를 언급하면서 조사 기관의 명칭도 함께 소개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인 점 ①
	청소년들의 사회성 결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제시한 점 ②
수정할 점	1문단에서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떨어뜨린 점 ③
	2문단에서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중복 사용한 점 ④
	3문단에서 접속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장 간의 연결이 어색한 점 ⑤

[8~10] 글을 쓰기 위해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급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글을 쓴다.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배양육 기술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
- 배양육 기술의 연구 현황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 배양육 기술을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견해가 다른 학생들도 있다. ㉢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육류의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 축산업은 이미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어, 육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축의 수를 더 늘리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 일부 기업들은 배양육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중략) ... 배양육 기술과 동물 권리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 공장식 축산을 대체함으로써 동물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과 살아 있는 동물들의 세포를 인위적으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동물들의 고통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으로 나뉜다. 한편, 한 식품 기업이 실시한 소비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는 ㉤ 배양육 기술로 만든 육류를 섭취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0년 전에 비해 약 34%p가량 상승했다.

- 환경 전문 잡지 『△△』 -

(다) 학생의 글

배양육 기술이란 살아 있는 가축의 몸에서 세포를 채취한 후 이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여 시제품 생산에도 성공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수준이다. 나는 배양육 기술이 기존의 축산업이 지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또한 배양육 기술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산업에 의한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며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나 쓰레기는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데, 육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축산업의 규모도 점차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배양육 기술은 가축 사육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축산업의 규모를 축소시켜 환경 오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배양육 기술은 동물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다. 현재의 공장식 축산에서 가축들은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갇혀 사육되고 있어 전염병에 취약하다. 또한 인간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각종 약물 투입과 비정상적인 교배를 당하기도 하며, 끔찍하게 도살되기도 한다. 배양육 기술이 발전하면 이러한 공장식 축산을 대체하여 가축들이 받는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배양육을 개발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 배양육 기술로 기존의 축산 방식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이는 선부른 판단이다. 배양육 기술에 드는 [A] 비용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만 높을 뿐이며, 연구가 진행될수록 점차 낮아져 더 이상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상용화도 가능하며 기존의 축산 방식을 대체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배양육 기술로 만든 육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또한 배양육 기술 관련 연구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8.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배양육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배양육의 종류를 열거한다.
- ② ㉠을 고려해, 배양육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배양육 기술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③ ㉡을 고려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배양육 연구 상황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 ④ ㉢을 고려해, 배양육 기술이 토양과 수질 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 ⑤ ㉣을 고려해, 현재의 공장식 축산에서는 가축들이 비위생적이고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사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이유로 들어, 축산업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제시했다.
- ② ㉢을 구체화하여, 축산업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을 제시했다.
- ③ ㉣의 사례를 찾아, 배양육 기술이 축산업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 ④ ㉤에서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여, 배양육 기술이 발전하면 공장식 축산을 대체하여 가축들이 받는 고통이 줄어들 것임을 제시했다.
- ⑤ ㉥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배양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배양육 기술 연구를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2008년 네덜란드 정부는 배양육 기술 연구에 4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이듬해 일부 기업에서 배양육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네덜란드의 배양육은 상용화 단계에 있지 않다. 현재의 축산 방식으로 얻는 고기에 못지 않은 맛과 영양 및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① 배양육이 상용화되더라도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맛과 영양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 ② 배양육 상용화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생산 단가가 낮아져 기존의 축산 방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 ③ 배양육 기술을 전수하는 데에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축산 방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힘써야 한다.
- ④ 배양육 기술 연구의 초기 단계에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배양육을 개발하는 데에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 ⑤ 배양육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축산 방식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보기>의 ㉠~㉣의 음운 변동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 기>

[선생님의 설명]

한 단어에서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날 때 그 순서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담한테[다칸테]'의 음운 변동은 '담한테 → [닥한테] → [다칸테]'로 설명하여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에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된 후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면 '[다칸테]'의 발음에 이르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단어들의 음운 변동에 대해 알아보시다.

[자료]

- ㉠ 읽네[잉네] ㉡ 꽃향기[꼬탕기] ㉢ 묻히다[무치다]
 ㉣ 부엌문[부영문] ㉤ 색연필[생년필]

- ① ㉠은 비음화가 적용된 후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야 한다.
- ②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에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야 한다.
- ③ ㉢은 구개음화가 적용된 후에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야 한다.
- ④ ㉣은 비음화가 적용된 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⑤ ㉤은 비음화가 적용된 후에 'ㄴ' 첨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 너’ 같은 대명사가 주격 조사와 결합할 때 ‘제, 네’로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대 국어에서 체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할 때 체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체언의 끝음절에 있는 모음이 탈락하고 다른 음운이 덧나는 단어가 있었다. 예컨대, ‘구무(구멍)’는 ㉠ 끝모음이 탈락한 뒤 ‘기’이 덧나 ‘구미’로 나타났다. 또한 ‘마루(마루)’는 ㉡ 끝모음이 탈락하고 ‘리’이 덧나는 체언이어서 ‘마리’에 주격 조사 ‘이’가 붙으면 ‘마리’로 나타났다. 그 외에 ㉢ 끝모음이 탈락하고 유성 마찰음 ‘ㅇ’이 덧나는 체언도 있었다. 이때 ‘ㅇ’은 현대 국어와 달리 소릿값이 있어서 ‘여스(여우)’가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면 ‘여이’로 나타났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 ‘갈[刀]’처럼 종성에 ‘ㅎ’을 가지고 있던 ‘ㅎ’ 종성 체언도 조사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가령 ‘ㅎ’ 종성 체언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할 때에는 ‘ㅎ’이 탈락하여 ‘갈(갈+ㅅ)’처럼 쓰였다. 그러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면 ‘ㅎ’을 뒤따르던 모음에 이어 적어 ‘갈히(갈+이)’처럼 쓰였다. ‘기, 디’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으면 ‘갈과(갈+과)’, ‘갈토(갈+도)’처럼 축약 현상이 일어났다. 중세 국어 말기부터 ‘ㅎ’ 종성 체언의 ‘ㅎ’은 [A] 점차 자취를 감췄다. 다만, 현대 국어의 몇몇 복합어들을 통해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수’와 ‘달’이 합쳐진 복합어는 ‘ㅎ’ 소리가 남아 있는 형태인 ‘수담’이다. 이는 ‘수’가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이었다는 점과 ‘수’가 ‘ㅎ’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복합어 ‘수담’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현대 국어 복합어에서 음운이 덧나는 현상은 중세 국어에서 초성 자리에 ‘ㅂ’을 지녔던 체언이 복합어를 구성할 때도 나타났다.

12. 윗글의 ㉠~㉢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보기>의 빈칸을 채운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나모+은) 새배 포르도다 [나무는 새벽에 푸르도다]
能히 ㉡ (홀르+을) 길우샤 [능히 하루를 길게 하시어]
㉢ (아스+이) 기세 있더니 [아우가 포대기에 있더니]

- | | | | |
|---|----|----|----|
| | ㉠ | ㉡ | ㉢ |
| ① | 나곤 | 홀를 | 아스 |
| ② | 남곤 | 홀를 | 앞이 |
| ③ | 나곤 | 홀을 | 아스 |
| ④ | 남곤 | 홀을 | 앞이 |
| ⑤ | 나몬 | 홀를 | 아시 |

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탐구 주제]

○ 중세 국어 시기에 종성에 ‘ㅎ’이 있거나 초성에 ‘ㅂ’이 있던 체언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중세 국어의 예

- 솔히 보드랍거시늘 [살이 부드러우시거늘]
- 안과 밋과 가운데를 [안과 박과 가운데를]
- 그 씨를 심고라 [그 씨를 심고 싶다]
- 거른 뿌리 드외어든 [검은 쌀이 되거든]
- 혼 때 제도록 길다가 [한 때가 지나도록 길다가]

현대 국어의 한글 맞춤법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ㅎ’ 소리나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ㅎ’ 소리가 덧나는 것: 살코기, 안팎
2.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법씨, 좁쌀, 접때

- ① ‘살’과 ‘고기’가 어울릴 적에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살’이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이었기 때문이겠군.
- ② ‘안’이 종성에 ‘ㅎ’을 가지고 있던 중세 국어 시기에 복합어 ‘안팎’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벼’와 ‘씨’가 어울릴 적에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벼’가 중세 국어에서 ‘ㅂ’을 종성으로 갖는 체언이었기 때문이겠군.
- ④ 현대 국어 ‘쌀’의 형태가 중세 국어에서 ‘쌀’이었다는 것은 현대 국어 ‘좁쌀’의 표기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겠군.
- ⑤ 현대 국어에서 ‘저때’가 아닌 ‘접때’로 표기하도록 한 것은 중세 국어 ‘때’의 형태를 고려하였기 때문이겠군.

14. 다음은 ‘명령문’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내가 지나갈 수 있게 너희는 길을 조금 내 줘. ⇒ 주어가 1인칭인 문장에서도 명령문이 실현될 수 있군.
②	· 오빠가 저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했어요. ⇒ 명령문이 간접 인용될 때에는 명령형 어미로 ‘-(으)라’가 사용되군.
③	· 강이 깊으니까 가지 마라. / *강이 깊어서 가지 마라. ⇒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 ‘-어서’를 뒤따르는 절에서는 명령문이 쓰일 수 없군.
④	· 너무 고민하지 마. / *너무 고민하지 않아. ⇒ 행동을 금지하는 명령문에서는 보조 용언 ‘않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없군.
⑤	· 여기 앉아 주세요 / *여기 앉아 주시면 고맙겠어요. ⇒ 문장의 형식이 명령문이 아니더라도 완곡하게 명령을 표현할 수 있군.

※ ‘*’는 비문임을 나타냄.

15. 다음 제시된 국어사전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가² 「조사」

(장소나 방향, 수단, 대상을 나타내는 일부 조사나 체언, 어미 ‘-아/어’ 따위에 붙어)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는 보조사. ㉠

-다가³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1. 어떤 동작이나 상태 따위가 중단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뀔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2. 어떤 동작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동작이 나타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3.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다른 일이 이루어지는 원인이나 근거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4.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 변주가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 ① ㉠에는 ‘새 책꽂이는 거기다가 두어라.’를 넣을 수 있다.
 ② ㉡에는 ‘교실이 조용하다가 시끄러워졌다.’를 넣을 수 있다.
 ③ ㉢에는 ‘그는 과장이었다가 차장이 되었다.’를 넣을 수 있다.
 ④ ㉣에는 ‘놀이만 하다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를 넣을 수 있다.
 ⑤ ㉤에는 ‘새벽에 아기가 자다가 깨다가 한다.’를 넣을 수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어리고 우환(迂闊)* 홀손 이니 우회 더는 없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부쳐 두고

누항(陋巷) 집흔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 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이 섯*이 되어

서 흙 밥 닷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사

㉡ 얼마 만히 바든 밥에 현순(懸鶩) 치자(稚子)*들은
장귀 벌여 줄 밀듯 나아오니

인정(人情) 천리(天理)에 츠마 혼자 먹을년가

설 데인 숙냉(熟冷)에 뵈 빈 비 숙일 뿐이로다

㉢ 생애(生涯) 이러호다 장부(丈夫) 뜻을 움길년가

안빈 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서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 더욱 서어(餽餼)호다

㉣ ㄴ을히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뵈엇거든 술병(瓶)이라 담겨시랴

(중략)

강호(江湖) 호 꿈을 문 지도 오래려니

㉤ 구복(口腹)이 누(累)가 되야 어즈버 이것도다

침피 기옥(瞻彼淇澳)* 훈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사

유비군자(有斐君子)* 돌아 낙디 호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집흔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넘즈 업슨 풍월 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호 백구(白鷗)야 오라 호며 말라 호라

다툼 이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이제야 쇼 빌기 맹세(盟誓)코 다시 마자

무상(無狀)호 이 몸예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맞논을 다 무겨 더더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스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러호여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너 일이 명(命) 밧긔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럽다 호건마는

너 생애(生涯) 이러호디 설은 뜻은 업노래라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호 뜻이 온포(溫飽)*에는 업노래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그르다 홀 이 뉘 이시리

그밧긔 남은 일이야 삼긴 더로 살렸노라

- 박인로, 「누항사」 -

*우환: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섯: 땀감으로 쓰는 나무.

*현순 치자: 헤어진 옷을 입은 어린 자식.

*수의: 마땅한 도리를 좇음.

*서어호다: 일이 어긋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침피 기옥: ‘저 기수(淇水) 물가를 바라봄’이라는 뜻의 『시경』 구절.

*유비군자: 배어난 군자.

*노화: 갈대꽃.

*빈이무원: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을 원망하지 않음.

*온포: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음.

1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비교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부각하고 있다.
 ②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가난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화를 드러내고 있다.
 ③ ㉢: 물음의 형식으로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있다.
 ④ ㉣: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 자신이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풍류를 나타내고 있다.
 ⑤ ㉤: 역설적 표현으로 끼니매가 된 것도 잊고 지낼 만큼 바쁨을 강조하고 있다.

17. '누항 집흔 곳'과 '노화 집흔 곳'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누항 집흔 곳'과 '노화 집흔 곳' 중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② '노화 집흔 곳'은 화자가 '누항 집흔 곳'에서 들인 노력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는 공간이다.
- ③ '누항 집흔 곳'과 '노화 집흔 곳'은 모두 화자가 타락한 현실에서 벗어나 도달하기를 꿈꾸는 이상적 공간이다.
- ④ 화자는 '누항 집흔 곳'에서도, '노화 집흔 곳'에서도 자신의 소망을 성취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누항 집흔 곳'은 화자가 궁핍으로 인해 고통 받는 공간이고 '노화 집흔 곳'은 화자가 꿈꾸었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공간이다.

18. <보기>는 [A]에 대한 '학습 활동 과제'를 수행한 내용이다.

(a)~(e)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습 활동 과제: [A]에 나타난 화자의 생각을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자.

- ◎ 논발을 잘 소가 없어도 이제 다시는 남의 집 소를 빌리려 하지 말자.
- ◎ 아무리 궁핍해도 남의 집이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①
- ◎ 빈천과 부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②
- ◎ 모든 것이 운명이니, 가난한 나의 삶을 서럽게 여기지는 않는다. ③
- ◎ 평생 동안 의식주만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④
- ◎ 충효, 우애와 신의를 실천하는 것은 떳떳한 삶이다. ⑤
- ◎ 그 일 외에 다른 것은 마음에 두지 않겠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 씨, 절망한 듯, 허정허정 마루로 간다. 늘어지듯이 끝이 가 텅벽 주저앉는다. ㉠바다를 한참 멀거니 내다보고 있더니, 한마디 한마디 불평에 찬 소리로 푸념을 한다.

공 씨: 강원도서 숯이나 굵고, 강냉이나 일구고 있었으면 아무 일 없는 걸…… 연평 가서 조기만 잡으면 돈 벌긴 물 묻은 손에 모래 줍기라고 하더니…….

낙경: ㉡(벌떡 악을 쓴다.) 그 녀두리 고만해.

공 씨: (벌떡 일어서며 쏘아붙인다.) 집 팔구 땅 팔아 가지고 와서 장만한 게 뭐야? 큰놈 둘째 놈 장가도 못 보내고 물에서 죽이지 않았어? 함까지 받아 논 다 큰 년을, 돼지 새끼 팔아 치우듯 팔아 가지고, 중선(中船) 밀친 찢러 넣었지? 그레도 다 못해서, 이제 열일곱 먹은 막내둥이 하나 있는 걸 마저 잡아먹으려고? 못해, 못해, 못해. (미친 듯이 고함을 치며) 또 송장도 못 찾게? 또 송장도 못 찾게?

낙경: 저게 귀신이 씌었나? 왜 악을 쓰구 이래?

공 씨: 또 강변에서 염하다가 놓친 년처럼, 우두커니 주저앉아서 송장 떠내려오기만 기다리라고? 못해, 못해.

천명, 방문을 제치구 뛰어나와 모(母)에게 매달린다. 공 씨, ㉢술개를 본 암탉같이 그를 가슴에다 꼭 껴안는다.

[중략 부분 줄거리] 천명이 타기로 한 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공 씨가 확인을 하려 들자, 공 씨의 동생인 배 주인 주학이 화를 낸다.

주학: 천명이 공분 누가 시켰소? 항구 팔목상점에 넣어 준 건 또 누구요? 허다못해 그놈이 여관집에서 외상 밥 먹은 밥값까지 내가 치러 주지 않았소?

공 씨: 아범, 내가 잘못했네. (울며) 입동이 널모렌데, 이 긴긴 겨울을 아범이 봐주지 않으면 어떡하겠나?

주학: 나두 할 만큼 했으니 인젠 모르겠소. 그만하든 예전에 매부가 중선 밀친 대 준 것은 갚았을 거요.

낙경: 내가 언제 그걸 갚아 달라든가?

주학: 매부두 말 마슈. 천명일 사공 시키자구 할 때마다, 매부두 내가 그놈을 부려 먹으려구 하는 것처럼, 공한 생각을 했지 뭐예요? 그러군 돌아서서, 날더러 심하대구 했지요?

낙경: 그건 자네 오해세.

주학: 오해가 뭐예요? 사실이지. 내가 천명일 돈 안 주구, 거저 쓰자구 합디까? 먹일 거 먹여 주고 한 달에 10원씩 주는 거 아니예요? 같은 돈 주구 나가기 싫다는 놈 억지로 쓸 필요 있겠소? 다른 사람 얻어 쓸 테니 그만두슈.

공주학,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도(街道)로 나간다. 공 씨, '아범', '아범' 하고 부르며 따라 나가다가 되돌아온다.

공 씨: (천명에게) 빨리 쫓아가서, 나가겠다고 그래라. 삼촌이 그래두 네 말은 들을지 모른다.

천명: (부동(不動))

공 씨: (아가 다시 초조하) 어서 이눔아, 쫓아가 봐라. 어머니가 주책없이 그런 소릴 했다고 하구. 어서 빨리.

㉔ 천명, 모(母)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낙경: 이 망할 자식이, 그래두 속을 못 채리구?

돌연 부엌 앞에 가로놓였던 그물 말^{*}을 집어 들고 천명을 내리갈진다. 공 씨, 낙경을 말리며

공 씨: (불쌍해서) 이눔아, 어서 삼촌네루 가라. 가문 안 맞지.

천명: (쥐어짜는 듯한 소리로 고함을 친다.) 죽으론 죽었지 그 벤 안 타요 그 벤 부자리^{*}가 헐었어.

낙경: 헐긴 그 배가 왜 헐어? 이눔아, 나가기 싫든 참에 핑계 하나 잘 잡었구나?

천명: 성 서방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 벤 대갈^{*}로 구멍을 메워 놔서, 겨우 물이 안 들어오지만, 대갈만 빠지문, 배 밑창으루 고태꿀이 빌 거예요. 더군다나 골판^{*}에서 노대^{*}나 한번 만나문, 부자리가 철썩 갈라질 거예요.

공 씨: 이눔아, 그진 구 주부가 너를 배에 못 타게 하느라구, 꾸며서 한 소리야.

천명: 내가 배에 가서, 대갈을 빼 봤어요. 나무가 썩어서, 우기적 우기적해요.

낙경: 이눔아, 어데가 썩었든? 응, 나하구 같이 가 보자.

천명: (낙경의 팔을 뿌리친다.)

공 씨: ㉔(다시 천명에게 달려들려는 부(夫)에게 매달리며) 임잔 어서 아범한테나 가 보슈.

낙경: 괜히 방정맞은 소릴 해 가지구,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놔?

낙경, 중얼거리며 공주학 나간 곳으로 나간다.

- 함세덕, 「무의도 기행」 -

*중선: 돛대가 둘 달린 중간 크기의 배.

*그물 말: 그물을 널 때에 받치는 나무.

*부자리: 배의 밑판.

*대갈: 대나무 조각.

*골판: 바다 한가운데.

*노대: 거센 풍랑.

19.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 씨는 자신의 고향인 바닷가 마을 외의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다.
- ② 낙경은 천명이 다른 아들들처럼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천명은 주학의 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확인했다고 부모에게 말하고 있다.
- ④ 주학은 천명을 사공으로 취직시킴으로써 그동안 공 씨 부부로 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려 하고 있다.
- ⑤ 공 씨와 낙경은 주학의 배에 대해 성 서방과 구 주부가 하는 말을 믿고 천명이 그 배에 타기를 원하고 있다.

20. 윗글을 연극으로 상연한다고 가정할 때,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파도 소리를 음향 효과로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의 특성을 부각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어촌민의 생활용품을 소도구로 배치하여 사실적인 분위기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어.
- ③ 주인공 가족의 의상은 남루한 것으로 준비하여 이들의 경제적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 좋겠어.
- ④ 주인공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찾아 가는 과정이 드러나도록 조명을 점차 따뜻한 색채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⑤ 주인공 가족의 집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바다가 배경으로 보이고, 또 한쪽에는 길이 연결되도록 무대 공간을 배치해야겠어.

21.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출항한 아들이 바다 너머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
- ② ㉑: 허황한 물욕을 드러내는 아내에 대한 짜증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㉑: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 있다.
- ④ ㉑: 수용하기 어려운 어머니의 요구에 대한 거부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㉑: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남편에게 의지하려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유전학은 특정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속성인 형질이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세포의 핵 속 DNA에 암호화된 채로 저장되어 있는데, DNA가 발현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따라 형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유전학은 DNA의 염기 서열이 영구적으로 변하는 ㉑돌연변이를 중심으로 개체의 형질 변화를 연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유전자의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도 개체의 형질이 변하는 현상들이 관찰되었고 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으로서 후성 유전학이 등장하였다.

후성 유전학에서는 ㉒DNA 메틸화를 형질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한다. D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네 개의 염기의 배열로 구성되며 DNA 중 일부 염기 서열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로 기능한다.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전사와 RNA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번역의 과정을 거쳐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생성된다. DNA 메틸화는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세 개가 결합한 화합물인 메틸기가 시토신에 부착되는 현상으로서, 유전자의 전사가 시작되는 부위인 프로모터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면 전사를 일으키는 데 필요

한 효소의 결합이 방해를 받는다. 프로모터에서 DNA 메틸화의 정도가 커질수록 해당 유전자의 발현 정도가 낮아지며 심한 경우 해당 유전자가 불활성화되어 발현되지 않기도 한다.

DNA 메틸화는 부모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두 개의 유전자 중 한쪽이 불활성화되어 다른 쪽 유전자만 발현되는 유전자 각인 현상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는 수정 과정에서 부계와 모계에서 동일한 개수의 염색체를 받아 염색체의 쌍들을 이룬다. 부계와 모계로부터 온 두 개의 염색체들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각 염색체의 특정 부위의 염기 서열로부터 발현되는 기능은 서로 같다. 이처럼 기능은 같지만 형질이 다를 수 있는 두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계로부터 쌍꺼풀 유전자를, 모계로부터 외가풀 유전자를 받았다면 각 유전자는 눈꺼풀을 형성하는 기능은 같지만 서로 형질이 다른 대립 유전자이다. 그러나 만약 부계나 모계의 특정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다량의 DNA 메틸화가 일어났다면 해당 유전자는 유전은 되지만 불활성화되어 발현되지 못하고 물리적인 위치가 같은 다른 쪽 유전자만이 발현되어 형질을 형성한다.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는 변화가 없지만 유전자 각인에 의해 형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각인은 부모의 정자 혹은 난자가 형성되는 생식 세포 발달 과정에서 진행되며, 수정 후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 동안에도 각인된 DNA 메틸화는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현재까지 인간은 약 80여 개의 유전자가 이러한 각인 방식의 조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유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각인은 대부분 수정란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수적이다.

DNA 메틸화로 인한 형질 변화는 스트레스나 영양 상태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 특정 프로모터에 DNA 메틸화가 일어나면 해당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어 예상하지 못한 형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DNA 메틸화는 수정 과정에서 일부는 제거되고 일부는 남아 유전된다. DNA 메틸화는 이렇게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다시 제거되기도 하여 매우 다양하게 형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번 일어나면 영구적으로 작용하는 돌연변이 방식보다 더 많은 형질의 다양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실제로 식물의 경우 유전되는 DNA 메틸화가 돌연변이에 비해 10만 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22.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DNA가 만들어 내는 단백질에 저장되어 있다.
- ② 부계와 모계로부터 온 대립 유전자는 염색체 내에서 물리적인 위치가 같다.
- ③ 환경적 요인에 의한 DNA 메틸화는 수정 과정에서 제거되어 유전되지 않는다.
- ④ 메틸기가 프로모터의 시토신에 부착되면 RNA를 이용한 단백질 합성 과정이 시작된다.
- ⑤ 유전자 각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두 개의 유전자 모두에서 불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변화시킨다.
- ② ㉠은 형질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최근에 관찰되었다.
- ③ ㉡은 프로모터에서 많이 일어날 경우 유전자 각인을 억제한다.
- ④ ㉠은 ㉡과 달리 식물에서 형질의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 ⑤ ㉡은 ㉠과 달리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형질을 변화시킨다.

24. 윗글의 '형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속성이다.
- ②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돌연변이로 인해 변화한다고 본다.
- ③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 ④ 부모로부터 받은 대립 유전자 중 하나가 불활성화되면 형성되지 않는다.
- ⑤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염기의 배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DNA 염기 서열이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 남자인 갑과 을에 대하여, A 유전자가 담당하는 기능 X와 B 유전자가 담당하는 기능 Y의 형질을 관찰하였다. 갑과 을이 출생한 직후와 30세 일 때 동일한 조건으로 관찰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단, 대립 유전자 중 부계가 불활성화되었을 때의 형질을 '+1', 모계가 불활성화되었을 때의 형질을 '-1', 둘 다 발현되었을 때의 형질을 '0'으로 표기하였다.)

		기능 X	기능 Y
갑	출생 직후	+1	0
	30세	+1	-1
을	출생 직후	+1	0
	30세	+1	0

- ① 갑과 을의 기능 X의 형질은 모계의 대립 유전자만이 발현돼서 형성된 것이겠군.
- ② 갑과 을이 30세에 기능 Y에서 형질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환경적 요인 때문이겠군.
- ③ 갑이 낳은 자식에게는 모계의 A 유전자는 유전되지만 부계의 A 유전자는 유전되지 않겠군.
- ④ 갑과 을의 부계의 A 유전자가 불활성화된 것은 수정란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것일 가능성이 높겠군.
- ⑤ 을의 B 유전자의 프로모터에는 전사를 일으키는 효소가 출생 직후일 때와 30세일 때 모두 잘 결합하였겠군.

[26~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각국의 정부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 구현을 위한 다는 목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대개의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행정 규제’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 규제가 어떤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우리 행정 규제 기본법에서는 행정 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 명시하여 반드시 법률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 기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행정 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 때는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영향 분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판단된 신규 규제는 정당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입법 절차를 거쳐 법률로 등록될 수 있다.

규제 영향 분석의 핵심을 이루는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편익 분석**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먼저 계산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크다면 사업 시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된다면 비용은 처음에 한 번 투입되지만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게 되어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사업 시행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할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데 미래의 편익은 동일한 양의 현재의 편익보다 낮게 인식되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할인율을 연 10%로 책정했다면 1년 후에 얻을 11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값인 1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얻은 연도별 예상 편익의 현재 가치를 모두 더한 값에서 최초에 투입된 비용을 뺀 값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어떤 신규 규제를 비용 편익 분석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이 계량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강력한 환경 규제에 대기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해 보자. 규제에 따르는 비용은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등으로 계량화되지만 대기의 질 향상이라는 편익을 정확하게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추정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계량화를 수행하는 정책 당국자가 규제의 입안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비용은 과소 계상하고 편익을 과다 계상하는 통계 조작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규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데 비용 편익 분석은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의 문제들이 심각한 것이라면 그것을 핵심으로 삼는 규제 영향 분석도 그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규제 영향 분석은 신규 규제의 도입이나 규제 강화를 위한 타당성 마련에만 초점을 둘 뿐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내지 완화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규제 개혁의 장치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규제 비용 총량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규제 신설 또는 강화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순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순비용을 지닌 기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순비용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도이다. 이때 순비용은 비용에서 편익을 뺀 값으로서, 비용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로 피규제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고 편익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규제 비용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폐지 또는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순비용을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 규제 비용 총량 분석은 규제 도입 시 피규제자인 기업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순비용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규제 영향 분석과 구별된다.

① **규제 비용 총량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규제 영향 분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영향 평가를 통해 규제 영향 분석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에서 도출된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피규제자인 기업의 규제 부담을 수반한다. 이 경우 국민 경제 전체의 파급 효과가 양의 값을 가져 정당성을 확보한 뒤에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규제 비용 총량제는, 국가 전체의 편익을 위한 규제의 도입은 규제 영향 분석을 근거로 허용되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기업의 부담만큼 동일 수준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규제 부담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우리 정부는 2014년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규제 비용 총량제 시범 사업을 2년간 운영한 후 2016년 ‘규제 비용 관리제’라는 명칭으로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26. 다음은 엇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엇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행정 규제와 관련된 법 규정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①
○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학자의 견해가 인용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다름 ②
○ 행정 규제 시행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③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시행하는 행정 규제는 어떻게 다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④
○ 행정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⑤

27. 밑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규제 영향 분석은 신규 규제의 도입에 따른 부담을 기존 규제의 강화를 통해 보완한다.
- ② 행정 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고자 할 때는 해당 규제가 행정 규제 기본법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③ 행정 규제에 따른 편익 중에서 계량화하기 힘든 것은 계량화하지 않은 채 규제 영향 분석을 수행한다.
- ④ 규제 비용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규제와 기존 규제의 준비율을 모두 측정해야 한다.
- ⑤ 우리 정부는 규제 비용 총량제 시범 사업 후 행정 규제 기본법의 개정을 거쳐 규제 비용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28. 밑줄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부는 신규 규제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 비용 총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가 규제를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회성으로 100억 원이 소요되고 피규제자 1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일회성으로 100만 원이 소요된다. 규제 시행 결과 1년 후 국민 경제에 미치는 편익은 109억 원이며 정부는 피규제자가 규제를 잘 준수한 경우 1년 후 108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미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 적용하는 할인율을 달리하여 결과를 도출한 표이다. 단, 편익은 1년 후의 편익만 계상하기로 한다.

규제 영향 분석	규제 비용 총량 분석	분석 결과
할인율 연 5%	할인율 연 5%	㉠
	할인율 연 10%	㉡
할인율 연 10%	할인율 연 5%	㉢
	할인율 연 10%	㉣

- ① ㉠: 규제의 정당성 확보로 신규 규제 등록 가능
- ② ㉡: 규제의 정당성 확보로 신규 규제 등록 가능
- ③ ㉢: 피규제자에게 적용되던 기존 규제 폐지 및 완화 필요
- ④ ㉣: 규제의 정당성 미확보로 신규 규제 등록 불가
- ⑤ ㉣: 피규제자에게 적용되던 기존 규제 폐지 및 완화 필요

29.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사업이 시행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위험을 안고 있다.
- ③ 미래의 편익은 동일한 양의 현재의 편익보다 낮게 인식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 ④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될 때 초기에 집행되는 비용은 연도 별로 분할하여 반영한다.
- 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을 특별히 취급해야 할 상황에서서는 분석의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30. 밑글의 ㉠이 동의할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규제 영향 분석은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비용 총량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 ㉡. 규제로 인해 국민 경제에 증가되는 편익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 침해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 규제에 대한 분석 방법이 규제 개혁의 장치로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기존 규제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 규제의 신설로 인해 국민 경제 전체의 순편익이 증가한다면 해당 규제는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해가 어느덧 서산마루에 걸쳐 있었다.
- ② 회의는 무려 열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 ③ 그녀는 마당에 걸쳐 있는 빨랫줄에 빨래를 널었다.
- ④ 그는 오늘 마음이 울적하여 술을 걸치고 잠이 들었다.
- ⑤ 절인이 몸에 걸친 누더기는 어제 내가 버린 것이었다.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금돼지에게 납치되었던 아내가 아들을 낳자, 최충은 그를 금돼지의 자식으로 의심하여 해변가에 버렸다가 몇 해 뒤 이를 후회하며 아이를 거두려 한다. 아이가 최충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자, 최충은 아이가 거처할 수 있도록 해변가에 누대를 짓는다.

이때에 중국 황제가 뒤뜰에 나와 노니는데 멀리서 시 읊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참으로 청아하고 담백하여 황제가 곁에 선 신하에게 물었다. “어느 곳에서 시를 읊는데 그 소리가 여기까지 이르는고?” 신하가 대답하기를, “몇 해 전부터 달이 밝으면 글 읊는 소리가 바람 속에 은은히 들리었는데, 이는 신라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라 합니다.” 하니, 황제가 듣고 말하기를, “신라는 치우쳐 있는 작은 나라인데도 또한 현자가 있구나. 만 리나 떨어진 외지에서 시를 읊는데도 그 소리가 이처럼 낭랑하니 하물며 가까운 곳에서 듣는다면 어떠하겠는가.” 하며 칭찬해 마지않더니 말하기를, “제사(才士)를 신라에 보내어 그곳 선비와 더불어 서로 제주를 겨루게 하리라.” 하고 즉시 군신을 불러 여러 학사 중에서 문예(文藝)가 탁월한 자 두 사람을 뽑아 보내게 하였다.

이에 두 학사는 배를 타고 바다로 향하여 가다가 누대 아래에 이르러 해가 지니 배를 누대 아래에 대었다. 이때는 중추월 보름이라, 밝은 달은 물결 속에 잠겨 있고 맑은 바람은 서서히 불어오는데 밤은 고요하고 물고기는 뛰어놀아 맑은 흥취가 날을 듯이 일어나는지라, 두 학사가 즉시 시 한 수를 지어 읊었다. '㉠ 삿대가 물결 밑 달을 꿰네[棹穿波底月].' 이때 다락 밑 모래 위에서 놀던 아이가 뒤따라 읊었다. '배는 물 가운데 하늘을 누르네[艇壓水中天].'

학사가 돌아보며, "누가 읊었을까?" 하고 그 어린아이가 읊었을 줄은 꿈에도 전연 모르고 또 한 수를 읊기를, '㉡ 물새는 뗏다가 다시 잠기네[水鳥浮還沒].' 하니 아이가 또 읊기를, '산 구름은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네[山雲斷復連].' 학사가 깜짝 놀라 바라보며 비웃듯이, '새와 쥐는 어찌하여 짹짹 하느냐[鳥鼠何雀雀乎].' 하니 아이가 또, '㉢ 돼지와 개는 어찌하여 멍멍 하느냐[猪犬忽蒙蒙乎].' 하니 학사가 크게 웃으며, "네 말이 그르다. 개는 멍멍 하나 돼지가 그러하느냐?" 하니 아이가, "새는 짹짹 하나 쥐가 그러한가? 그대 말이 우스워 나 또한 그리 응수하였소" 하는지라.

학사가 대답을 못 하고 물었다. "어디에 사는 동자인데 이 깊은 밤에 여기에 있느냐?" 하니, 아이가 대답하되, "저는 신라 문창원 최충의 자식으로 마침 구경을 나왔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또 묻기를, "너는 몇 살이나 되었느냐?" 아이가 대답하기를, "여섯 살이옵니다." 하거늘, 두 학사는 동자가 문장에 능함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제 겨우 여섯 살의 어린아이가 이렇듯 재능이 탁월하니 신라의 선비들이야 어찌 당하겠는가?" 하고 아이에게 다시 묻기를, "나라 안에 재사(才士)가 많이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재주가 특히 뛰어난 자가 수백 인이요, 문사의 수는 이루 셀 수도 없나이다." 하니, 두 학사가 상의하여 말하기를, "문재(文才)가 나라에 가득하니 들어간들 무익할 것이니 아니 들어간 것만 못하리니 돌아갑시다." 하였다.

두 학사가 중원으로 돌아가서 황제에게 아뢰기를, "신라에는 뛰어난 문인과 재사가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고 신(臣) 등과 같은 수준도 수백 인이나 되어 감히 대적할 수 없겠나이다." 하는지라. 황제가 크게 화를 내어, 트집을 잡아서 치고자 하여, 계란을 솜으로 여러 번 싸서 돌함에 놓고 황초를 불에 녹여 그 안을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구리쇠를 녹여 함에 부어 열어 보지 못하게 하여 봉서(封書)와 함께 신라에 보내었다. 봉서의 내용인즉, '너희가 바닷가에 불은 하찮은 나라로서 재주로 대국을 업신여기는 고로 이 돌함을 보내노니, 함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 시를 지어 보내라. 만약 그리하지 못하면 마땅히 살육지화(殺戮之火)를 당하리라.' 하였더라.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나)

이러한 옥이의 하나님은 며칠 지나지 않아 곧 모화의 의혹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옥이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밥을 받아 놓고 그가 기도를 드리려니까, 모화는,

"너 불도에도 그런 법이 있나?"

이렇게 물었다. 모화는 옥이가 그동안 절간에 가 있다 온 줄만 믿고 있으므로 그가 하는 것은 모두 불도(佛道)에 관한 일인 줄로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아니오, 오마니, 난 불도가 아닙니다."

"불도가 아니고 그럼 무슨 도가 있어?"

"오마니, 난 절간에서 불도가 보기 싫어 달아났댔습니다."

"불도가 보기 싫다니, 불도야 큰 도지…… 그럼 넌 뭐 신선도가?"

"아니오, 오마니, 난 예수도를시다."

"예수도?"

"북선 지방에서는 예수교라고 함데다. 새로 난 교지요."

"그럼 너 동학당이로구나!"

"아니오, 오마니, 나는 동학당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교을시다."

"그래, 예수도온가 하는 데서는 밥 먹을 때마다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나?"

"오마니, 그건 주문이 아니외다. 하나님 전에 기도 드리는 것이외다."

"하나님 전에?"

모화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내셨으니깐요."

"야아, 너 잡귀가 들렸구나."

모화의 얼굴빛은 순간 퍼렇게 질리었다. 그리고는 더 묻지 않았다.

다음 날 모화가 그 마을에 객귀 들린 사람이 있어 '물밥'을 내주고 돌아오려니까, 옥이가,

"오마니, 어디 갔다 오시나요?"

하고 물었다.

"저 박 급창 댁에 객귀를 물려 주고 온다."

옥이는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이더니,

"그럼 오마니가 물리면 귀신이 물려 나갑데까?"

한다.

"물려 나갔기 사람이 살아났지."

모화는 별소리를 다 묻는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경주 고을 일원을 중심으로 수백 번의 푸닥거리와 굿을 하고, 수백 수천 명의 병을 고쳐 왔지만 아직 한 번도 자기의 하는 곳이나 푸닥거리에 신령님의 감응을 의심한다든가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더구나 누구의 객귀에 물밥을 내주는 것쯤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떠 주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손쉬운 일로만 여겨 왔다. 모화 자신만이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굿을 청하는 사람, 객귀가 들린 사람 쪽에서도 그와 같이 믿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들은 무슨 병이 나면 먼저 의원에게 보이려는 생각보다 으레 모화에게 찾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생각에는 모화의 푸닥거리나 누님이 의원의 침이나 약보다 훨씬 반응이 빠르고 효험이 확실하고 부담이 적었던 것이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수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던 옥이는 고개를 들어 그 어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마니, 그런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네다. 오마니, 이것 보시오. 마태복음 제구장 삼십오절이옵시다. 저희가 나갈 때에

사귀 들려 멍어리 된 자를 예수께 다려오매, 사귀가 쫓겨나니 멍어리가 말하거늘…….”

그러나 이때 벌써 모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언제나 차려 놓은 신주상 앞에 가서, (중략) 신주상 위의 냉수 그릇을 들어 물을 머금더니 옥이의 낯과 온몸에 확 뿜으며,

“엇쇠, 귀신아, 물러서라/여기는 영주 비루봉 상상봉에/깎아질린 돌베랑에, 쉼 길 청수에/너희 올 곳이 아니니라/바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불을 들고/엇쇠, 잠귀신아, 썩 물러서라, 뿔 뿔!”

이렇게 외쳤다.

- 김동리, 「무녀도」 -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을 전개한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나열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킨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에 대한 감각적 묘사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그려 낸다.
- ⑤ (가)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나)는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전달한다.

3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제는 신라에서 시를 읊는 소리가 중국에까지 들린다는 말을 쉽게 믿지 못하였다.
- ② 황제는 시를 읊는 신라의 유생을 설득하여 중국으로 데려오라고 두 학사에게 명하였다.
- ③ 두 학사는 누대 아래에서 만난 어린아이의 재주가 신라에서 으뜸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④ 두 학사는 신라를 구경해 보고 싶었으나 황제의 명을 생각하여 뱃머리를 중국으로 돌렸다.
- ⑤ 황제는 만약 자신이 낸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구실로 삼아 신라를 침공하고자 하였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풍경의 아름다움을 보고 흥취가 일어 읊은 시이다.
- ② ㉡은 회답을 한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읊은 시이다.
- ③ ㉢은 듣는 이뿐 아니라 말하는 이 역시 결함을 인식하고 있는 말이다.
- ④ ㉠과 달리 ㉢은 상대의 말에 대한 응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동물에 대한 비유를 활용하여 듣는 이를 격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35. **하나님**과 **신령님**을 중심으로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이는 자신이 복선 지방까지 찾아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경위에 대해 모화에게 털어놓았다.
- ② 모화는 옥이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불도와 관련된 행동이라 생각하면서도 의아하게 여겼다.
- ③ 모화는 ‘신령님’이 병증을 치료하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
- ④ 모화는 옥이가 믿는 ‘하나님’이 불교나 신선도와 마찬가지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 ⑤ 옥이는 ‘신령님’을 믿으라는 모화의 설득으로 인해 번민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내고자 하였다.

36. 다음 ‘선생님의 말’과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의 말】

소설의 작가는 갈등을 통해 당대 사회의 문제를 조명합니다. 이때 작가는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내기 위해, 인물의 성격에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적 요소를 부여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인물의 성격을 보여 주는 단서들과 결부하여 작중 갈등의 양상을 살펴본다면, 작품의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

「최고운전」은 신라 시대의 인물인 최치원의 삶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하며 중국 중심의 질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작품이고, 「무녀도」는 기독교인인 아들과 무당인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그림으로써 기독교와 무속 신앙 간 종교적 대립의 양상을 첨예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 ① (가)에서 신라에 재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자 중국 황제가 크게 화를 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라 선비와 중국 학사의 ‘재주를 겨루게’ 하려는 황제의 행동은 신라를 ‘작은 나라’로 여기며 중국의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주인공이 신라인이면서 중국 학사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황제가 신라에 ‘살육지화’의 위협을 가한 것은 이러한 재능이 중국 중심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인식한 결과로 볼 수도 있겠군.
- ③ (나)에서 작가가 무당인 모화의 아들 옥이를 ‘예수교’ 신자로 설정한 것은, 종교적 측면에서 모자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첨예하게 빚어내기 위한 의도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굿의 영험에 대해 ‘의심’하는 옥이의 행동은, 무속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던 고을 사람들의 관습적인 믿음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겠군.
- ⑤ (나)에서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하는 옥이의 말을 들은 모화가 방에 놓인 ‘신주상’을 치우는 모습은, 기독교의 교세에 밀려 무속 신앙이 쇠퇴해 가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군.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카르트가 육체와 정신은 별개의 실체라는 심신 이원론을 주장한 이래, 육체와 정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철학의 중심 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신경 과학 분야에서 정신이 육체의 물리적 상태에서부터 실현된다는 근거들이 발견되면서 정신을 물질로 환원하여 심신 현상을 설명하려는 동일론이 주목을 받았다. 동일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정신과 물질의 연결 문제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물리적 사건들만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일론의 기반이 되는 정신의 물질로의 환원에 대해 의심하는 철학자들은 새로운 심신 이론을 내세워 이에 대응하였다.

정신의 물질로의 환원에 대한 문제 ㉠ 제기는 주로 '복수 실현 가능성 논변'에 의해 이루어졌다. 복수 실현 가능성이란 특정 정신적 상태가 유기체의 종에 따라 각기 다른 물리적 상태에 의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다양한 유기체에서 발생하는 고통이라는 동일한 ㉡ 감정이 인간에게는 뇌의 신경 섬유의 활성화에 의해 실현될 수 있지만 다른 유기체는 그와 다른 물리적 상태에 의해 실현될 가능성을 ㉢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하나의 감정 상태를 여러 물리적 상태와 동일시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환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변에 따르면 고통을 뇌의 신경 섬유의 활성화로 환원할 수 없게 된다.

일부 철학자들은 정신적 상태를 물리적 상태로 환원하지 않고 정신적 상태를 인과적 기능과 동일시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러한 ㉣ 입장을 역할 기능주의라 하는데, 이에 따르면 동일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물리적으로 다른 여러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것처럼 정신적 상태도 다양한 물리적 구성을 가진 유기체에서 동일하게 실현된다. 즉, 정신적 상태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외부 자극이라는 입력과 행동이라는 출력을 인과적으로 매개하는 역할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역할 기능주의는 동일한 기능을 ㉤ 수행하면 정신적 상태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로봇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을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등 우리의 상식적 직관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정신적 상태가 인과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신을 물질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정신이 물질에 수반된다고 생각하는 심신 수반 이론이 대표적이다. 이 이론은 동일한 물리적 상태에 있으면 정신적 상태가 동일하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정신적 상태의 변화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며, 수반 관계에 있는 두 상태는 동시에 변한다.

㉦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느끼고 그에 따라 가시를 뽑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물리적 측면만 보자면 이 현상은 가시에 찔림, 신경 섬유의 활성화, 가시 뽑는 행위로 이어지는 물리적 인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신경 섬유의 활성화는 고통을 수반하므로 고통이라는 정신적 상태가 가시 뽑는 행위를 유발하는 인과도 발생한다. 이 경우에 신경 섬유의 활성화와 고통을 별개의 원인으로 생각하면 한 결과에 여러 원인이 작용하는 과잉 인과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심신 수반 이론은 정신적 상태를

물리적 상태와 동일시하여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때 정신적 상태는, 정신적 상태의 인과적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상태로 환원된다. 복수 실현 가능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심신 수반 이론은 특정 정신적 상태를 구현하는 물리적 상태가 유기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환원은 동일한 물리적 토대를 지닌 종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국지적 환원을 내세웠다. 인간의 고통은 뇌의 신경 섬유의 활성화로 환원되고, 다른 종의 고통은 그에 맞는 다른 물리적 상태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37. 위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데카르트는 육체와 정신의 연결 문제를 동일론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 ② 국지적 환원은 같은 물리적 토대를 지닌 종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환원이다.
- ③ 신경 과학 분야에서 발견된 근거들로 인해 동일론은 이론적 한계에 부딪혔다.
- ④ 물리적 상태와 수반 관계에 있는 정신적 상태는 독립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 ⑤ 동일론과 역할 기능주의는 정신이 물질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38. '복수 실현 가능성 논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신적 상태를 물리적 상태로 환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가 된다.
- ② 정신적 상태를 인과적 기능과 동일시하는 이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고통의 느낌이 여러 가지 종류의 물리적 상태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 ④ 다양한 유기체에서 발생하는 고통이라는 감정이 모두 동일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 ⑤ 한 원인이 여러 결과를 유발하는 과잉 인과의 문제를 동일론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논변이다.

39. '심신 수반 이론'의 관점에서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시를 뽑아서 신경 섬유의 활성화가 멈추면 그 순간 고통의 느낌은 사라진다.
- ② 고통을 신경 섬유의 활성화로 환원하면 과잉 인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신경 섬유의 활성화와 고통은 동시에 작용하여 가시를 뽑는 행위에 이르게 한다.
- ④ 가시에 찔려서 신경 섬유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순간 고통의 느낌도 동시에 생긴다.
- ⑤ 고통은 신경 섬유의 활성화라는 입력과 가시를 뽑는 행위라는 출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4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한 인간이 M1의 감정을 느끼고 나서 연이어 다른 감정 M2를 느꼈다. 인간은 M1과 M2를 느끼는 시점에 각각 P1과 P2의 물리적 상태에 항상 있으며, P1과 P2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인간과 다른 종인 어떤 외계인은 M1로 추측되는 감정을 느끼는 시점에 항상 특정 물리적 상태에 있다.

- ① 동일론은 P1과 P2의 인과 관계를 M1과 M2의 인과 관계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겠군.
- ② 역할 기능주의는 P1을 하나의 기능으로 간주하여 M1이 P1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역할 기능주의는 외계인의 M1로 추측되는 감정을 실현하는 물리적 상태는 P1과 다를 수 있다고 보겠군.
- ④ 심신 수반 이론은, 인간과 달리 외계인은 M1이 P1에 수반된다고 보겠군.
- ⑤ 심신 수반 이론은 P1은 P2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M1은 P2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겠군.

41.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의 동음이의어가 아닌 것은?

- ① ㉠: 예전에는 기왓장 가루로 제기(祭器)를 닦았다.
- ② ㉡: 그녀는 전문가에게 미술품의 감정(鑑定)을 의뢰했다.
- ③ ㉢: 그는 소문에 대해 부인(否認)하지도 않았다.
- ④ ㉣: 신랑이 입장(入場)을 마치고 나니 신부가 나타났다.
- ⑤ ㉤: 그는 산에 들어가 수행(修行)하는 데에만 전념하였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 추운 겨울 이리 때는 어디로 몰려다니랴.

㉠ 침침이 눈 쌓인 골짜기에

재목을 싣고 가는 화물차의 철로가 있고

언덕 위 파수막에는

눈 어둔 역원이 저녁마다 램프의 심지를 갈고

포근히 눈은 날리어

포근히 눈은 내리고 쌓이어

날마다 침울해지는 수림(樹林)의 어둠 속에서

이리 때를 근심하는 나의 고적(孤寂)은 어디로 가랴.

㉡ 눈보라 휘날리는 별판에

통나무 장작을 별정게 지피나

아 일찍이 지난날의 사랑만은 다스리지 아니하도다.

배낭에는 한 줌의 보리 이삭

쓸쓸한 마음만이 오로지 추억의 이슬을 받아 마시나

㉢ 눈부시게 흰한 산등을 내려다보며

홀로이 돌아올 날의 기꺼움을 못 가졌노라.

㉣ 눈 속에 싸인 골짜기

사람 모를 바위틈엔 맑은 샘이 솟아나고

아늑한 응달 녘에 눈을 헤치면

그 속에 고요히 잠자는 토끼와 병든 사슴이.

한겨울 내린 눈은

㉤ 높은 별에 쌓여

나의 꿈이여! 온 산으로 번어 나가고

어디쯤 나직한 개울 밑으로

훈훈한 동리가 하나

온 겨울, 아니 온 사철

내가 바란 것은 오로지 다스한 사랑.

한동안 그리움 속에

고운 흙 한 줌

내 마음에는 보리 이삭이 솟아났노라.

- 오장환, 「신생(新生)의 노래」 -

(나)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를

㉠ 무슨 무슨 주의(主義)의 옛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 있는 것은 흙집투성이 몸통뿐

㉢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神木)*의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國道邊)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양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봄기운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여

앞사귀 달린 시(詩)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아도

- 최승호,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 -

* 신목: 신령이 강림하여 머물러 있다고 믿어지는 나무.

4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영탄적인 어조를, (나)는 어순의 도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명령형 어미를, (나)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시상의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부정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된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43.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 자연의 위력에 맞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암시된다.
- ② ㉡은 화자가 현재의 고난에 맞서려고 시도하는 공간으로서, 이를 통해 화자가 과거의 경험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이 암시된다.
- ③ ㉢은 화자가 추억을 회상하는 공간으로서, 이를 통해 화자가 밝은 미래를 확신하게 되었음이 암시된다.
- ④ ㉣은 가혹한 시기에도 생명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환기하는 공간으로서, 이를 통해 화자의 내면적 변화가 암시된다.
- ⑤ ㉤은 화자가 다다르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공간으로서, 이를 통해 화자가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하고 있음이 암시된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가위질'이라는 표현에서는, '무슨 무슨 주의의 옛장수들이' 가하는 이념적인 횡포의 파괴성이 드러난다.
- ② ㉡의 '흙집투성이'라는 표현에서는, 화자가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상태임이 드러난다.
- ③ ㉢의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라는 표현에서는, '나의 나라'가 자포자기에 빠진 화자의 내면을 의미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 ④ ㉣의 '소리 죽여'라는 표현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기 힘들 정도로 억눌린 화자의 상황이 드러난다.
- ⑤ ㉤의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이라는 표현에서는, 극한 상황에 몰린 화자의 결연함이 드러난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인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는 시에서, 시인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모색하는 선지자적 존재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신생의 노래」에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고독하게 살면서도 일제 강점하의 폭력적 시대 상황에 대해 고뇌하며 공존의 원리에 바탕을 둔 이상적인 공동체의 부활을 꿈꾸었던 시인의 선지자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에서는 정신적으로 황폐화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감지하고 자신이 공동체에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에서 그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선지자적 면모는 자연물과 교감하며 생명과 풍요를 기원했던 전통 사회의 주술적인 요소들과 결부되어 형상화되기도 한다. 그러한 요소들에는 모든 존재들과 감응하며 살아갔던 전통적인 삶의 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 ① (가)의 화자가 '수림의 어둠 속'에서 '나의 고적은 어디로 가랴'라고 자문하는 것에서, 현실을 벗어나 고독하게 살면서도 시대 상황을 씬 없이 고뇌하는 시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흔흔한 동리'에 대해 상상하며 '내가 바란 것은 오로지 다스린 사랑'이라고 강조하는 것에서, 공존의 원리에 바탕을 둔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시인의 갈망을 엿볼 수 있군.
- ③ (나)에서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상황을 염려하는 것에서, 정신적으로 황폐화된 미래 사회를 감지하는 시인의 선지자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에서 '사라진 신목의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내'는 모습에서, 다른 존재들과 감응했던 전통적인 삶의 자취를 떠올리며 현실을 견뎌 내는 시인의 선지자적 면모를 엿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화자의 '마음'에 '보리 이삭'이 솟아나는 상황과 (나)에서 화자가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쓸 수 있으리라 여기는 상황에서, 생명과 풍요의 삶이 부활하기를 갈망하는 시인의 내면을 엿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